

# 민주 대권주자들 언론중재법 온도차

### 이재명·이낙연·정세균 강경 박용진·김두관 비판 목소리 지지층 전략과 연계 해석 판단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 간에 언론중재법을 놓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찬성 분위기지만 각 캠프에 따라 전략적인 판단을 내놓고 있다.

23일 현재 가장 적극적인 입장은 기자 출신의 이낙연 후보가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언론중재법 문제위 전체회의의 단독 처리(19일) 이후인 22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제 위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가짜뉴스로 입은 상처나 명예훼손은 평생 치유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민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태도는 최근 지지율 정체 극복을 위해 개혁 노선에 방점을 찍고 있는 흐름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선명한 메시지 발신을 통해 강성 지지층을 끌어안기에 나선 셈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같은 날 "언론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가짜뉴스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선명성 경쟁에 뛰어 들었다.

그는 "언론 자유 억압은 옳지 않지만,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배제된다. 언론이 역할을 잘해줄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 5배로는 약하다. 고의적 악의적 가짜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히 징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가 뜨겁게 맞붙는 현 정국에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본선에서의 외연 확장을 감안해야 하는 이 후보로선 중도층이나 당 밖의 여론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추미에 후보는 공식 입장은 아직 내지 않았지만 더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알려져 있다.

추 후보 측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알맹이가 빠져 아쉽지만 도입되는 게 어디냐"며 "왜곡 보도가 심한 부분이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에 대한 건데 그 부분이 빠져 하나하나 한 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 반면 박용진 후보가 당 대선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비판적 목소리를 낸 데 이어 김두관 후보도 이날 가세했다.

박용진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 취지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자칫 개혁의 부메랑 효과로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 부분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민주주의 국가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며 "법사위 단계가 남았는데 이런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마지막까지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문제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이 의결된 지난 19일에도 "개혁의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김두관 후보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론에 어떻게 반대하겠느냐"면서도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살펴보니 독소조항이 많이 있었다"며 "문제는 (법 내용을) 가져다가 붙이기 나름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윤 입단속에도 이어지는 도발 '할리우드 액션' 시선에 손사래

### 유승민 "후보따로 참모따로인가" 윤 일정없이 비전발표회 준비 올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가 반복적으로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캠프 내부 주의 조치에도 이준석 대표를 향한 참모들의 도발 발언이 이어지면서 고도로 기획된 '치고 빠지기' 수법 아니냐는 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23일 "캠프 외형이 커지면서 개별 구성원의 발언을 통제하기 어렵게 됐다"며 "내부적으로 주의를 촉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영삼 전 캠프 국민통합특보의 '도발'은 단적인 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대표 사퇴 후 유승민 캠프로 가라"고 비꼬았다가 파문이 일자 특보직에서 해촉됐다.

일부 친윤 세력이 이 대표 퇴진을 염두에 두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는 지난 20일 언론 보도도 진위를 떠나 '캠프 관계자'의 입에서 비롯된 것으로 돼 있다.

경쟁 주자들은 최근 윤 전 총장 캠프발 설화가 의도적이라고 의심한다.

윤 전 총장 본인은 겉으로 이 대표에게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참모들은 앞다퉀 이 대표를 혼드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는, 이른바 '할리우드 액션' 의혹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캠프 인사들이 계속 당 대표를 혼드는데, 이런 일이 후보 승인이나 목인 없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며 "후보 따로, 참모 따로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전 의원 캠프 대변인을 맡은 김중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실수가 아니라 고도의 프레이밍"이라며 "뿔뿔조각의 프레이밍이 이번에도 먹힐까"라고도 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 측은 이 같은 시각에 손사래를 친다.

김병민 캠프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민 전 특보의 발언에 대해 "부캐가 본캐를 압도해서 벌어진 일들이 아닌가"라고 비유했다.

캠프 특보(분개력터)가 아닌 시사평론가(부개력터)로서 얘기하다 보니 민 전 특보 개인 의견을 캠프 공식 입장으로 오해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은 공개 일정 없이 오는 25일 있을 비전발표회 준비에 공들이고 있다. 준비된 정책 역량을 선보여 그간의 감점을 만회하겠다는 의지다.

전날 저녁까지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캠프 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이날은 코로나19 이후 민생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큰 틀의 국정운영 철학과 그 디테일을 7분의 발표에 두루 담을 수 있도록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이준석 대표, 대선 경선 앞두고 당내 분란 공식 사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3일 대선 경선을 앞두고 벌어진 당내 분란 상황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지금까지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분란과 당내 다소간의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 겸허하게 진심을 담아 국민과 당원께 사과의 말씀 올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는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애타게 기대하시는 대로 꼭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하는 선거"라며 "비록 그 방법론과 절차에 있어서 다소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선관위가 출범하

는 이상 이런 이견보다는 정권교체를 향해 모두 결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혼란과 여러 부족했던 점에 대해 사과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도 공정한 경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우리 지도부가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한다"고 거듭 자세를 낮췄다.

이 대표의 사과는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갈등이 '위협수위'를 넘었다는 지적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 벌인 '녹취록' 진실 공방, 당 경선준비위원회의 토론회 추진을 둘러싼 월권 논란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대선 선거관리위원장에 정홍원 전 총리

국민의힘은 23일 대선 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선임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다수의 원로분과 접촉하면서 의견을 경청했다"며 "19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내신 정 전 총리께서 우리 당의 선거위원장을 맡아주시기로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 전 총리에 대해 "당내에서 존경을 받고, 무엇보다 승리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라

고 소개하면서 "최고위 결의를 통해 정 전 총리께 공정한 경선 관리와 흥행을 위한 전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검사 출신으로, 2004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정관급), 2012년 한나라당 공관위원장, 2013년 새누리당 공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초대 총리를 지냈다.

정 전 총리가 이끄는 당 선관위는 26일 출범할 계획이다. 이어 30~31일 대선 후보 등록을 받는 다.

/연합뉴스



언론중재법 관련 발언하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문화예술단체·대표자 291명 이낙연 지지 선언

광주지역 문화예술가와 단체 대표자 291명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융성이라는 시대정신을 매개로 행복한 광주, 올바른 대한민국을 책임질 대통령은 이낙연 후보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에 있어 유

력 후보들의 문화 분야 공약을 분석한 결과 광주와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깊은 식견과 이해, 그리고 세계문화도시 광주로 가는 비전 실현과 문화예술인의 권익실현을 위한 최상의 선택으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후보가 내세운 대표 공약인 '문화강국'은 문화예술인의 복지와 선순환적 일

자리정책의 연결로 인본주의 철학이 깃든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며 "힘든 시절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감동과 행복 그리고 '흥'을 나눌 수 있는 문화 대통령이 될 것을 굳건히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지지 선언에는 조순대 김경양 명예교수와 서영화 교수, 광주교대 박재욱 명예교수, 호신대 강양은 명예교수, 임해철 교수 등 이 지역을 대표하는 원로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표자 290여 명이 동참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 임시총회 소집 공고

다수와 같은 사유로 밀양박씨청제공파문중 임시총회를 소집하고자 하오니 필히 참석하시어 아래 안전에 대한 의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2021년 09월 05일(일요일) 14:00
2. 장소: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산 32-16 (문중제자)
3. 안건: (1) 대표자 선임 건 (2) 문중 명칭명경 건 (3) 문중표지 별호 및 제작 보수 건 (4) 재무 책임 및 선임 건 (5) 문중소유 토지 매각 및 매입 건 (6) 문중규약 제정 건 (7) 주사무소 변경 건 등

2021. 8. 24.  
밀양박씨청제공파문중 연구회총자(19세손) 박영배  
연락처 010-8615-6733  
박광성 010-9622-9283  
밀양박씨청제공파문중총원

###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이민행(880711-XXXXXX)  
• 최후주소: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653, 42-1 B동 204호(소촌동)

피상속인 망 이민행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1년 8월 23일 362호로 신청하여 2021년 8월 18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지시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8월 24일

• 상속인: 이지은(000709-XXXXXX)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261번길 11 303동 1103호  
(신가동, 아름마을휴먼시아)

• 신고기간: 2021. 8. 24. ~ 2021. 11. 2  
• 채권신고처: 상속인 이지은의 주소

###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 (1차)

본 회사는 2021년 8월 18일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 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1년 10월 30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8월 24일  
주식회사 시이테크  
광주 광산구 목련로397번길 27, 102호(신가동)  
청산인 강우미

### 산행안내

9월12일(일)  
▲광주K산악회 9월12일(일) 경북 포항&내연산 산행, 영주체육관 06:00, 동아병원 06:05, 롯데백화점 06:10, 광주역 06:15, 문예후문 06:25, 비엔주 차장 06:30 \* 다음카페 광주K산악회 ☎ 010 7794 6920

### 분할합병 정정공고

본지 2021년 8월 6일자 (주)케이에스 코리아와 신광건설(주)간 분할합병공고 내용 중 '대표이사 김정명'을 '대표자 사내이사 김정명'으로 정정 공고함.

2021. 8. 24.

광주신청 및 개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 光州日報

69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 지역안내 •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북 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